임실경찰, 우수 아동안전 지킴이집 감사장 수여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9일 관촌 우수 아동안전 지킴이집(김모씨 운영, 삼성전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임실경찰서 관촌파출소는 지난 3월 29일 같이 사는 아들 내외의 가정불화로 인한 김모씨(71)의 가출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타격대 등 경찰 30여명이 동원되어 주소지 주변 야간수색 등 주민상대 탐문에 나선바 있다. 이에 관촌파출소 양재석 경위는 아동안전 지킴이집에 도움을 요청, 관촌터미널 부근 CCTV 영상기록과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해 가출인이 관촌터미널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했음을 확인하고 동선을 찾아 주민신고로 다음날 아침에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선정된 우수아동안전 지킴이집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가 감사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아동통학로 근처에 범죄나 각종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지정한 상가 등을 말한다.

이동민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아동안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격려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총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나서

남원소방서는 최근 코로나19사태와 4.15총선 등 공직자의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6일부터 15일 선거 종료일까지 순회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각 부서를 불시 방문해 복무규정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지침 준수여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품위훼손 행위, 불필요한 단체활동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서장(사진)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며, 이번 총선이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게 치러지도록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전 직원이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서 도통지구대, 선거벽보 부착지대 순찰강화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제 21대 총선용 선거 벽보가 부착된 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도통지구대 관내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된 곳은 18개소로, 유동순찰과 도보순찰을 병행 실시해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순찰노선을 지정했다.

이동권 지구대장은 "공직선거법상 선전물을 훼손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집중순찰을 통해 위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순찰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스크 봉사에 이어 반찬 봉사까지'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 단체급식 중단된 취약계층 50세대에 밑반찬 전달

정읍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봉사가 계속되고 있다.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아) 회원들은 지난달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수제마스크를 제작해 전달한 데 이어 밑반찬 봉사에도 참여해 눈길을 끈다.

시에 따르면 12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9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밑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밑반찬 나눔 행사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 저소득층 50세대에게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사업이다.

봉사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와 어려운 이웃돕기를 동시에 실천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지속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을 고려해 회원들은 2단체씩 교대로 여성봉사관에 모여 김치를 비롯한 계절 밑반찬을 조리했다.

특히, 이날 봉사에는 유진섭 시장의 배우자 오명숙 여사도 밑반찬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직접 참여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힘을 보탰다.

사랑과 희망을 담은 밑반찬은 회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되어주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순아 회장은 "코로나 19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밑반찬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며 "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2개 소속단체로 구성된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해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코로나 19 극복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자봉센터 - 용담면자원봉사단, 밑반찬 나눔 봉사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샌터장 최미자)는 9일, 용담면자원봉사단(단장 안준옥)과 함께 코로나19의 여파로 고립된 용담면의 홀몸어르신 등 150가구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이 일시 폐쇄 되어 이용하지 못하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는 요즘 홀몸어르신 등의 영양 결핍 해소 및 결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자칫 입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즘 제철 김치와 파래무침, 돼지고기장조림 등을 정성껏 만들어 직접 배달하였으며, 여기에 미래하이텍 최형진 대표의 구운계란 150판과 진안군한돈협회(회장 구경본)의 돼지고기 후원으로 온기를 더했다.

최미자 센터장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혼자 끼니를 챙겨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반찬으로 생기를 되찾으시면 좋겠다."며 "바쁜 와중에도 진안군민을 위해 수제면마스크만들기 자원봉사에도 수차례 참여해주고 밑반찬 봉사까지 하는 용담면자원봉사단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무심코 한 행동으로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장, 성금 100만원 기탁

박용석 한국육계협회 부안군지부장은 최근 부안군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써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봉 의용소방대, 면사무소 주변 하천 정비

김제시 진봉면 의용소방대(대장 장환근)는 9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면사무소 주변 하천 환경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유독 강한 진봉의 바람에 실려온 쓰레기들이 하천에 쌓여서 경관을 깨끗이 하고자 의용소방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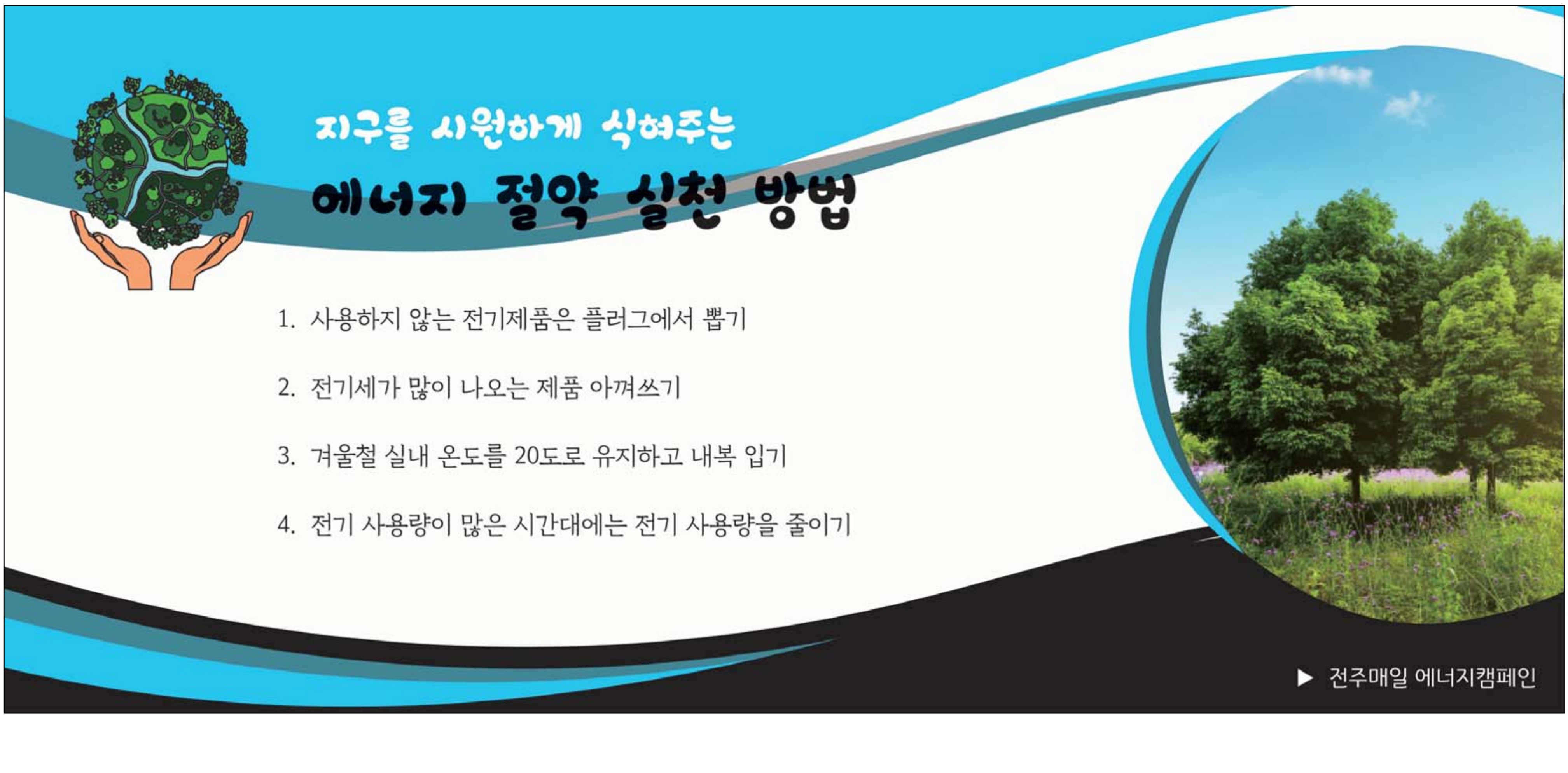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환근 대장은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내 손으로 내 지역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의용소방대 회원들과 같이 보람있는 활동을 하게 돼 기쁘다" 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제2회 119문화상 공모전 홍보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문학·미술 작품으로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119문화상 공모전'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작품 공모는 고등학생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히 이번 공모전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상이 신설되었다.

모집부분은 △문학분야(동화,소설) △미술분야(상상화, 기록화) △특별상(미술분야)로 나뉘며 작품소재는 재난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과 동참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나 재난현장 소방활동, 미래의 소방관, 과거 대형재난 등을 소재로 한다.

선정 방법은 1차 예심을 거쳐 2차 본심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소방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며 상금은 총 2200만원이 지급된다.

참가 방법은 소방청으로 온라인 접수(https://119contest.fire.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기타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또는 무진장소방서 예방안전팀에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